

광산구 '경청 리더십' 자치행정 신선

박병규청장 '경청 구청장실' 운영
길 위의 소통창구 안착
다양한 제안·건의 쏟아져

현장과 시민 등 '구청 밖'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치행정과 접목 중인 민선 8기 광산구청장의 '경청 리더십'이 자치행정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이 현장 소통 행정 강화 의지를 담아 취임 1호로 결재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이미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평동역에서 시민과 퇴근하는 근로자 등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박 구청장은 매주 2회씩 시민의 삶이 있는 곳으로 구청장실을 옮겨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박 구청장의 모습 바라보는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형식적이고, 사전에 기획된 틀 속에서 이뤄지던 기존 자치단체장들의 '소통 방식'과는 차별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무작정 현장으로 찾아가 1~2시간 정도 주민을 만나 얘기를 듣는 '게릴라식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박병규 청장이 받은 건의사항만 65건에 달한다. 노인, 주부, 직장인, 노동자, 청년,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 세대와 만났고,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발굴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는 게 박 청장의 설명이다.

실제 비어5일시장 여자 화장실 환경 개선, 야호센터 마을 인문학 강좌 지속 운영 민원, 월곡등을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최근 비어5일시장에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열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심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 청소년과 관련한 상생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이다.

박 구청장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일 광산구 청년과의 간담회는 청년 일자리, 청년과 행정의 소통 창구 등 민선 8기 청년정책의 방향성 등이 핵심 주제가 됐다.

경청 구청장실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시민의 이야기에 반드시 '답'을 준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현장에서 접수한 모든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로 전달한 뒤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박 청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응답하는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청장실에

관리카드를 부착, 직접 조치 현황을 챙기고 있다.

평동 두산마을 주민이 요구한 마을 입구 안내판 설치, 첨단2동 상인회가 제시한 상권 주점차 관련 상생 방안 등도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과정이 구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참여를 높이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구청장은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이 점차 시민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며 "시민이 꿈꾸고 바라는 광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뛰며 더 크게 뛰를 열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생각하는 파이 한 조각 어때요?"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광산아트플러스 52번째 전시



광주 광산구는 "지난 9일부터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광산아트플러스 52번째 '생각하게 살아있는, 생각하는 파이(사진) 전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드로잉, 조각, 짧은 소설 등을 활용한 김유민 작가의 설치 작품으로 짓눌린 무의식을 깨운 자아의 확장된 체험을 선사한다.

김유민 작가는 "나를 허술하다고 규정 짓거나 느끼게 했던 관념들의 실체를 직시하고 분석해 '나만의 허술함'을 재정의하는 경험을 나누고 싶다"며 "가볍고 즐거운 상상의 조각들이 우리가 알던 '허술함'이라는 고정된 틀에 균열, 틈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열리며(월요일 휴관)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

960-3687)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안심식당, 식중독 예방 캠페인 영상 제작

광주 광산구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 관내 안심식당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영업주와 함께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제작한 이번 영상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과 식중독 원인 및 증상, 관내 안심식당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정보 등을 담았다. 광산구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 SNS를 기반으로 이번에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식중독 예방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또 식중독 수치가 높은 날에는 여름철 시민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540개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LED 전광판을 통해서도 식중독 예방 수칙, 조리 요령 등을 홍보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여름철 음식 섭취로 인한 복통, 설사 등 식중독이 증가하는 만큼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

조직진단 및 노무관리, 방만한 경영 집중 점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노조의 구청 앞 농성을 놓고 노무관리 부재에 따른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가 공단의 조직과 인사 및 경영 효율성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구청 앞 장기집단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환경직 노조의 활동과 관련해 공단 경영진의 전문성이 결여된 허술한 노무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공단에 6개 노조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점을 비롯한 이번 집단 농성에 이르는 과정 등에서, 공단 측이 노조를 이해시키는 등의 대화와 타협에 소홀한 점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단의 인사, 조직, 계약, 노무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부 공인노무사를 포함한 8명의 감사반을 구성

해 공단 전체적인 업무를 낱알이 파악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5월 광산구가 실시한 공단의 자체감사 결과 밝혀진 일부 방만한 경영도 이번엔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5년 공단 설립 당시 102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2021년 기준 245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배경도 꼼꼼히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직원이 대폭 늘어나고, 조직 자체가 방대하게 운영된 부분 등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해 세심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집단 농성인 만큼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업유치 등에 끼치는 대외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모집

광산구 첨단도서관

광주 광산구 첨단도서관은 "책 속으로 걸어가는 심리여행' 주제로 한 '2022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도서관 거점으로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첨단도서관은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6주간 심리학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강연과 후속 모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립동과 사직공원 일대 시비(詩碑)를 돌아보며 개인과 나라의 역사, 문화의 연결고리를 생각해보는 탐방도 진행한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지난 9일부터 광산구 평생학습포털(edu.gwangsan.go.kr)에서 수강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첨단도서관(062-960-8297)으로 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광주여대, 장기입원 퇴원자 일상회복 지원 '맞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

광주 광산구는 "최근 광주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장기입원 후 퇴원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새로운 삶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여대 특성화 사업인 '웰다잉&웰에이징 문화조성 프로그램'과 광산구의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연계해 장기입원 생활을 마친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 삶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대상자의 발굴과 홍보, 자조모임 지원 등을 추진하고, 광주여대 산학협력단은 정서지원 인지활동 등 건강관 노화와 독립적인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관·학이 협력해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는 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의료적 필요도는 낮으나 돌봄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장기입원 중이던 환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해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 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월부터는 지역 상담기관과 협력해 장기입원에서 퇴원한 대상자의 마음 치유와 정서 안정을 위한 '행복마음채움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